

<지난주 말씀>

▶우리가 선포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서는 생명을 얻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흑암이 무너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봉인된 두루마리를 여시는 분'이 누구냐? 성경은 오직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참 많습니다. 이런 상징들을 우리가 임의로 해석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고 명백하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직접 설명하시기 전에 우리가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계시록도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복음으로 문을 들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 때 주님은 들어오십니다. 이 말은 내 삶을 주님이 사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례식장을 다녀오는 중에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렉카를 불러서 가던 중에, 이게 무슨 사건인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원하시나, 기도하던 중에, 아,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사람이구나 깨달아져서 바로 차 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영적 존재며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만날 수 없습니다. 전 목사인데, 하나님이 펑크를 내셔서 선생님을 만나게 했고 선생님이 구원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오늘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 집이 전부 다 기독교 집인데 자기만 교회를 안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렉카를 하니깐, 24시간 대기를 해야 하니깐 누구도 자기에게 교회를 가자고 말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선생님이 교회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교회 못가면 안됩니까? 그러면서 제가 신분을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리면 오늘도 선생님이 운전하는 이 자리가 교회가 되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만 바뀌어 버리면 선생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를 설명했더니 이 사람이 길가에 차를 대고 그 자리에서 영접하는 것 있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복기도하니깐 좋아가지고,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같이 살고 같이 먹고 함께 가겠다, 이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고양에서, 명절 주간에, 타이어를 펑크내서 그 분을 만나게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조건이 타이어 터져서 부르는 수 밖에 없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타이어 하나 펑크나고 영혼 구원한다면 타이어는 얼마든지 터져도 되는 상관없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오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구나.

▶지금도 주님은 237나라, 5000종족,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을 자를 준비해 놓고 그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가진 자를 붙여서 그들을 구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계3:4에 창조의 근본입니다. 그 분은 보좌에 계시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한주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

1.사도 요한이 본 것

▶첫번째로 오늘 계시록 5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계5:1)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쓰여 있고 일곱 인으로 봉인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일곱 인은 성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 성령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봉하신 것입니다. 안팎으로 써져 있다는 것은 완벽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더 빠하고 더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나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계5:2-3)

요한은 이 소리를 천사가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능히 이 두루마리를 보거나 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볼 자가 없다, 움직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계5:4-5)

사도 요한이 천사가 두루마리를 펴 자가 없다고 해서 크게 울었습니다. 그러자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말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겼다는 것입니다.

▶봉인된 두루마리를 펴실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분은 영세 전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 증거로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주로 서실 분입니다. 심판주로 서셔서 천국과 지옥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계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일곱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펴고 읽고 볼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봉인된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그 분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도 성령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시고 놀랍게도 나는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사도 요한이 또 본 것

▶요한이 본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냐, 그 이기신 분이 누구냐, 그 두루마리의 일곱 인을 떼실 분이 누구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계5:6)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실 분을 본 것입니다. 일곱 뿔과 일곱 눈은 상징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곱 뿔은 완전한 권세, 일곱 눈은 완전한 통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합니다.

▶그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계5:7)

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

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계5:8)

놀랍게도 이 두루마리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서입니다. 놀랍게도 이 절대 계획서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렇게 금 대접에 담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 대접에 담겨서 두루마리에 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하세요.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기도 하지 마시고 7만대, 7억정, 7이정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게,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3시대의 응답이 나에게, 5력이 나에게, 우주의 흑암을 쫓을 수 있는 힘이 나에게, 미리 볼 수 있는 CVDIP의 힘이 나에게, 3월의 힘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10가지 비밀과 발판을 통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붙잡고 걸어가 수 있도록,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함께 내 인생에 내가 중심되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살아가도록, 내가 가는 곳마다 캠프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조금만 묵상하면 여러분 과거가 다 보입니다. 오늘 선택과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과거가 미래와 연결됩니다. 과거에 살던 대로 미래를 가게 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표는 과거와 미래가 끊어져서 새로운 미래로 바뀌는 시간표입니다.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삶을 사는 시작입니다. 이게 안되면 미래는 소망이 없어요. 뻥합니다. 쉽게 말해 부모의 인생을 똑같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부모의 인생처럼 살면 안됩니다. 미래를 바꾸고 싶은 사람은 오늘 결단하고 선택하시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8절에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나옵니다. 네 생물이 무엇입니까? 절대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죠. 한쪽에는 사자, 한쪽에는 송아지, 한쪽에는 사람, 한쪽에는 독수리,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사자를 통해 들짐승, 송아지를 통해 가축, 사람을 통해 사람, 독수리를 통해 날짐승,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이 이십사 장로도 사실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구약의 열두 지파와 신약의 열두 사도를 더해서 이십사 장로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십사 장로의 의미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계5:9)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새 노래를 불러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찬송하는 이 분은 바로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실 분입니다. 이 분이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분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말하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전부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좌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계획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고 펼 수 있는 분은 오직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권세를 가진 분인지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3.사도 요한이 또 보고 들은 것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계5:11)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이 말은 헤아릴 수 없는 수라는 것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계5:12)

이 어린 양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장차 우리가 봐야 할 그리스도입니다. 만만이요 천천인 천사들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이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우편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일곱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 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계5:13-14)

이게 우리가 믿는 어린 양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영광을 지

금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이 영광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주에 이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바울은 직접 세 번째 하늘에 가서 이걸 봤잖아요.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는 금대접에 담깁니다.

▶오직 영광과 찬송은 성삼위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분은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어린 양으로. 이 분은 누구입니까? 일곱 영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떼실 분입니다. 그 분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 분이 경배의 대상이고 그 분이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결론》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보좌를 보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일곱 영을 보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분은 일곱 영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떼실 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은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경배의 대상입니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보좌에 앉을 분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조의 모든 세계가, 모든 피조물이 경배하는 대상입니다.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일곱 영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유일성을 찾아야 합니다. 이 유일성을 붙잡을 때 나타나는 것이 재창조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주님이 남기고 간 것은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밖에 없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빛교회
ζωη φως ἐκκλησία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0-147호

담당목사 : 곽동호

전 화 : 010-5205-4079

E - mail : dhkwak0224@hanmail.net

인생복음상담 : 070-4406-4079